

# “미치면 이긴다” 광주FC, 휴식기 전 분위기 바꿀까

내달 2일 FC서울과 원정 경기  
최근 3경기 1무 2패... 9위 하락  
공수 겸장 허울 능력 발휘 기대  
링가드 한국 무대 첫 골 막아야  
이정호 “축구에 미쳐 날뛰겠다”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광주FC가 가수 싸이(PSY·본명박재상)의 명언을 새기고 다시 달린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치며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만큼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FC서울에 반드시 승리를 챙긴다는 각오다.

광주는 다음 달 2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1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이번 경기 직후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열려 휴식기를 갖는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광주다. 광주는 최근 전북현대모터스(0-3 패)와 인천유나이티드(1-1 무), 포항스틸러스(0-1 패)에 고전하며 올 시즌 5승 1무 9패(승점 16)로 6위에서 9위까지 떨어졌다.

특히 패배가 가장 많은 점이 뼈아프다. 광주는 13라운드까지 무승부 없는 결과로 승점을 쌓는 동시에 많은 패배를 기록했다. 현재 최하위인 대전(2승 5무 8패·승점 11)보다 1패가 많아 가장 먼저 두 자릿수 패배 고지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FC가 다음 달 2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1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2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15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정호 감독은 직전 경기인 포항전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독일 속담에 ‘사람은 실패를 통해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있다”며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잘하는 점은 좀 더 날카롭게 갈고닦아야 한다. 선수들에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미쳐야 한다고 했는데 저부터 축구에 미쳐 날뛰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 감독의 구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

수는 허울이다. 올 시즌 도중 최전방 공격수에서 중앙 수비수로 변신을 꾀한 가운데 훈련은 물론 실전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장 안영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변준수와 호흡을 맞추며 탄탄한 수비로 안정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세트피스에서는 날카로운 공격을 자랑한다. 지난해 9월 서울 원정에서는 전반 4분 선제골 겸 결승골의 좋은 기억도 가졌다.

허울과 변준수의 좌우를 책임질 측면 수비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민기와 두현석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김진호와 이도뜸, 이상기 등이 기회를 받고 있다. 포포비치와 김한길, 하승운 역시 측면 수비를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또 함께 측면을 흔들 공격 자원들도 주목된다. 측면 수비에서 김진호의 속도가 돋보인다면 공격에서는 엄지성과 가브리엘, 정지용 등의 파괴력이 눈에 띈다. 최

근 광주의 공격진은 과감한 슈팅 시도로 상대 골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올 시즌 개막전의 좋은 기억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광주는 지난 3월 안방에서 열린 서울과 1라운드 맞대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이번 시즌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당시 공격포인트를 올렸던 가브리엘과 이근희가 자신감을 지녔다.

서울은 최근 2경기에서 1무 1패로 아쉬운 내용을 보이는 등 김기동 감독의 첫 시즌에서 부침을 겪으며 4승 5무 6패(승점 17)로 8위에 머물러 있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순위를 맞바꾼다.

다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의 ‘간판스타’ 제시 링가드의 발끝은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다. 링가드는 무릎 부상으로 공백기를 가지며 올 시즌 6경기 출장에 그쳤으나 최근 3경기를 모두 선발로 나서며 감각을 조절하고 있다. 재능이 뛰어난 선수인 만큼 첫 공격포인트도 언제든 터질 수 있다.

링가드와 함께 측면을 누빌 최준의 존재도 경계 대상이다. 19, 20, 21, 23세 이하 대표팀 등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최준은 1부리그 첫 경험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14경기에서 2도움을 올리는 등 맹활약하며 A대표팀에 승선했다.

이정호 감독과 김기동 감독의 맞대결은 항상 치열한 양상으로 이어지며 이아깃거리를 양산해왔다.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양 팀이 어떻게 분위기를 반전할지 사령탑들의 지략이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전남드래곤즈 전유상, 국제친선대회 나선다

21세 이하 선발팀 소집

전남드래곤즈 미드필더 전유상과 호남대 축구부 수비수 강동현이 한국을 포함 10개 국의 19-23세 이하 선발팀이 참가하는 ‘모리스 레벨로 국제친선대회’에 출전한다.

대한축구협회(KFA)는 다음 달 3일(한국 시간)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툴롱에서 열리는 모리스레벨로 국제친선대회에 나설 21세 이하 선발팀에 전유상과 강동현을 비롯 24명의 선수를 소집했다.

모리스레벨로 국제친선대회는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까지 사용된 ‘틀롱컵’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국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진행한 뒤 각 조 1위 팀이 결승에 진출하고 나머지 팀들은 순위 결정전으로 향하는 구조다.



최재영 선문대 축구부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한국은 A조에 편성돼 다음 달 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5일 코트디부아르, 8일 프랑스, 11일 멕시코를 차례로 상대한다.

다만 이번 대회 기간이 FIFA(국제축구연맹)가 정한 A매치 기간보다 길어 최재영 감독을 KFA 전임 지도자인 송창남, 조세권 코치가 보좌하고 남현우 아주대 축구부 골키퍼 코치가 합류했다.

또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학축구연맹과 협의를 통해 팀을 구성하면서 K리그 선수 11명과 대학 선수 11명, 해외 선수 2명 등 24명을 소집했다. 해외에서는 황인택(포르투갈·GD 이스토릴 프라이아)과 조진호(세르비아·FK 노비파르)가 소집됐다.

한규빈 기자

## 전남도청 우수팀, 전국종별대회서 ‘金·金·金’

박정열·김영준·장민규 메달 사냥

전남도청 우수팀 투로 선수 전원이 제7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정상에 오르며 금메달을 휩쓸었다. 박정열(장권)과 김영준(남권), 장민규(태극권전능)가 그 주인공이다.

전남도청 우수팀은 지난 25-27일 경북 김천종합스포츠타운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박정열은 장권에서 허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기로 1위를 차지했다.

김영준은 남권에서 가벼운 몸놀림으로 고난도 기술들을 선보이며 1위에 자리했고, 장민규 역시 태극권전능에서 국내에서 사례가 없었던 최고 난이도 기술을 펼치며 1위에 올랐다.

한규빈 기자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체중 선수단이 30일 학교 강당에서 해단식을 열고 성과를 자축하고 있다. **광주체중 제공**

## 광주체중, 지역 엘리트 체육 요람 입증했다

소년체전 金 12·銀 8·銅 10  
이루리·노효림 최우수선수

광주체중 학생 선수단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총 30개의 메달 사냥에 성공하며 지역 엘리트 체육의 요람임을 입증했다. 근대3종 이루리(광주체중 2)와 조정 노효림(광주체중 3)은 최우수선수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광주체중은 30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소년체전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이번 대회 성과를 자축했다. 광주체중은 지난 24-28일 전남 일원에서 열린 소년체전에서 우수 성적을 거뒀다. 금메달 12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를 수확했고 3관왕과 2관왕 등 다관왕 4명, 최우수선수 2명을 배출했다.

이루리는 근대3종 여자15세이하부 개인전과 단체전, 계주를 모두 휩쓸며 3관

왕과 함께 최우수선수에 등극했다. 이루리는 개인전에서 수영 280점으로 공동 5위에 그쳤으나 레이저 런(사격+육상) 582점으로 2위에 오르며 총점 862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 4명 합계로 성적을 가리는 단체전에서는 송현서, 이지아(이상 광주체중 3), 양보민(광주체중 2)과 총점 3351을 합작하며 서울체중(총점 3188)과 부산체중(총점 3140) 등을 크게 따돌렸다.

계주 역시 압도적이었다. 이루리와 이지아, 양보민이 함께 나서 총점 675를 기록하며 서울체중(총점 651)과 부산체중(총점 575) 등을 여유 있게 제쳤다. 이루리와 파트너를 이룬 이지아와 양보민은 단체전과 계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이다은(광주체중 3)은 역도 여자15세 이하부 인상과 용상, 합계를 싹쓸이하며 3관왕에 올랐다. 이다은은 인상에서 77

kg, 용상에서 98kg, 합계에서 175kg을 기록하며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노효림(광주체중 3)은 조정 여자15세 이하부 싱글스컬 결승에서 3분53초5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이와 함께 최우수선수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레슬링에서 김성수(광주체중 3)와 최지원(광주체중 2), 양궁에서 김종연(광주체중 3)과 강수정(광주체중 2), 체조에서 송채연(광주체중 2) 등이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준재 광주체중 교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쾌적한 훈련장 조성하고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과학적인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광주체중은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한국 스포츠 영광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